

주님께서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며
그냥 '더워지라'고 하지 않고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우쳐 주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에 교회 출석은 하지만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도, 더 마음 다해 드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충성한다 해도 마음의 활력을 하지 않으니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삶의 변화가 없지요.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차가운 신앙이 되고 맙니다.

차라리 차가운 신앙 상태에서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가령,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므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통회자복하면 신앙을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일 때에는 그런 기회조차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신앙이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에서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설령 회개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해도 이미 깨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담긴 근본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걸친 신앙을 말합니다. 양쪽에 걸쳐 있다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유익이나 편의를 좇아 좋은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계 3:16).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계의 말씀입니다.

3.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령이 부요하여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3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말씀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반면에 심령이 부요한 사람은 교만, 자존심, 이기심, 욕심 등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

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령이 부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눌러놓았던 욕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특히 부와 명예와 권세 등을 가지면 점점 욕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지요.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없고 기도도 점점 쉬다가 멈춥니다. 형식적인 행함만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일보다는 자신과 세상의 일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4.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차라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므로 영혼이 곤고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열심을 내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지요.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설령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해도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니 '가련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은 결국 썩고 없어질 것에 불과하며, 썩지 않을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쌓아 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지도 않고 물질이 아까워 심지어 못하니 결국 하늘나라에 쌓은 것이 없습니다. 설령 나중에 회개해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해도 받을 상급이 전혀 없지요. 그러니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정성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습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령한 영의 세계를 알

지 못하므로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곧 영적으로 눈먼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마 6:22~23). 성도로서 당연히 입어야 할 의의 옷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벌거벗었다' 하는 것입니다.

옷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며,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을 할례 하여 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할례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할례하지 않아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5.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경우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합당한 축복을 주

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복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면 부와 명예, 권세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 일은 뒷전으로 하고 명예와 부를 좇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연합합니다.

물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을 심어 주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더 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세상과 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하다' 책망하십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24시간 GCN 방송 인터넷과 모바일로 만나세요!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권능을 체험한 간증, 수준 높은 찬양... 인터넷(www.gcnetv.org)과 모바일(mgcnetv.org)에 접속하면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의 생명력 있는 콘텐츠를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민TV 법인명이 (주)지씨엔방송으로 변경됐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하나. 모바일 실시간 방송은 가급적 와이파이(WiFi) 환경에서 접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 3G 접속 시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사용하는 요금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셋. 인터넷 방송 품질은 사용자의 접속환경 및 접속자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October 10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10월 주요 프로그램 안내

7 일
창립 29주년 전야행사생생
22:30-04:00

8 일
창립 29주년 전야행사제
16:00-17:00 / 23:00-24:00

9 주일
창립 29주년 분향사생
14:30-17:00
창립 29주년 분향사제
23:00-24:00

8, 15, 22, 29 일
2011 기원성모음(1-4)
11:00-14:00
10 ~ 27 매주 월-목
GCN TV설교(목과원1-식)
00:00-03:30

8, 15 일
GCN 독산영화 (웨바디스)
14:00-15:30 / 18:30-20:00
22, 29 일
GCN 독산영화 (왕중왕)
14:00-16:00 / 18:30-20:30

위성 및 인터넷TV안내 1577-2073

GCN

*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